고지점령 대신 휩쓸리지 말기

(예레미야 46:1~28)

24.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26.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2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고지점령 대신 휩쓸리지 말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고지점령 대신 휩쓸리지 말기'
오늘 본문부터 예레미야서 마지막까지 유다의 주변국이었던 10개의 이방나라에 대한 멸망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방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애굽의 멸망 예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교회의 청년들에게 화두가 되었던 "고지론(高地論)"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힘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줄달음 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지를 정복하는 것이 유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론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창 화두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못마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이런 문제로 인해 화가 났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화를 낼 문제라기보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염

두에 두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근본에 충실했더니 결과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영향력을 목적이나 목표로 삼는 것 자체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여기는 발상자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고지론이라는 말 자체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여전히 신앙인들 사이에 이와 같은 생각은 팽배합니다. 가정에서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대화를 가정해봅니다. 배우자가 돈을 잘 못 번다고 타박하면서 돈을 벌어 와야 교회에 헌금도 하고 선교사님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댑니다. 이것이 고지론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고지론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전부터 성도들은 암묵적으로 고지론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지를 점령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선민의 반열에 들어서는 순간 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다만 많은 성도들이 이를 착각하거나 오해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미 중심점이 되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고지론을 주장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속해있는 인간 사회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발상부터 달라집니다. 선민의 반열에 오른 순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의 중심점에 서게 되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미 중심점에 섰기에 고지를 점령할 목적도 사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다소의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고지론 같은 주장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힘과 권력을 쥔 사람들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치인, 고급 공무원, 재벌, 산업계의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수장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사회의 중심이고 고지를 차지한 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어찌됐던지 결정권이 있으며 그로인한 권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힘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거물급 정치인의 자제들이 진학할 때가 되면 입시제도 자체가 바뀌는 일도 일어나고, 강남이라는 한정된 지역 때문에 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꼭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 회사를 보아도 사장과 임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몇몇 정치인과 재벌들과 언론과 초대형 로펌이 주무르는 나라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실은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라지

신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의 중심점에는 언제나 선민이 있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힘과 권력이 주어졌든 주어지지 않았든 선민은 이 세상의 중심임을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이라면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공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명실 공히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이었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 중에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던 여자도 있었습니다. 귀신들린 딸을 두었던 이방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었으며, 열두 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산헤드린공회의 회원들과 이 여성 그룹은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공회와 같은 권력집단을 사회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지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힘 있는 산헤드린공회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사회를 유지하셨던 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외면 받고 소외되었던 여성 그룹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중심이 잘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의 존재는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관점에서 보자면 나사로 때문에 부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사로는 부자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며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의한 애굽의 멸망이 예언됩니다. 역사적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은 근동지방의 국제관계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올라오는 신흥대국이었고 이들 사이에 유다 선민들이 끼어있었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애굽에 대한 멸망 예언이 이어지다가 27~28절에서 선민들에게 일어날 일이 예언됩니다. 선민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던 나라들은 없어지더라도 선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이방 10개국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읽을 때에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해석의 중심축입니다. 10개국의 멸망은 선민이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또 선민이 선민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하게 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애굽의 멸망 뒤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주관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선민이 선민답지 못함으

로 인해 주변 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민의 선민다움이 유지되었다면 주변 10개국에 대한 상황도 달라질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민다움은 구약시대에도 유지되지 못했으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민다움이 흩어져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민의 회복을 바라십니다. 선민이 없다면 이 세상 자체를 끝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선민다움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선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주를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선민들이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의 존재와 삶도 유지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애굽과 바벨론이 세계의 중심처럼 여겨졌습니다. 선민들은 나라가 망해서 각 나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중심으로 삼으신 자들은 선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변화시키시고자 하신다면 힘과 권력을 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편하고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렛대의 원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0kg짜리 물건을 10m지렛대로 들어 올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쉽게 들기 위해서는 힘을 주는 사람이 받침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위치해야 합니다. 거리가 충분히 멀다면 초등학생도 100kg의 물건을 아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받침점으로부터의 충분한 거리는 곧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권력입니다. 이것을 많이 가진 자가 세상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지렛대의 원리가 아닙니다. 지렛대를 이용하기 위한 거리로써의 힘과 권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직접 물건을 들어 옮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건을 옮기실 하나님 곁에 붙어있으면 됩니다.
고지론으로 대표되는 지렛대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지렛대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도 없으며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 10개국에 대한 예언의 첫 번째로 애굽이 등장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자 했던 지렛대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진보된 문명과 문화를 가진 선진국이었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경제대국과 안정된 사회는 늘 선민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선민들이 보기에 애굽은 바벨론이라는 문제를 들어 옮길 수 있는 지렛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

굽에게 첫 번째 멸망의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애굽이 중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중심을 놓고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중심은 예전과 변함없이 선민입니다.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은 어떤 자가 선민이냐는 것입니다. 또 선민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45장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에 대해 예언을 해준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에 선민을 하나님의 노략물로 비유하였고, 이를 통해 예레미야의 천재적 영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멸망이 예언되고 맨 마지막에 선민의 회복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중심에 선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관련되어 바룩에게 주어진 예언을 통해서 통치의 중심에 있는 선민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선민이 해야 하는 일은 결코 고지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주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4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공표하는 과정 중에 신앙과 애국심 사이에서 번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노략물이 되라는 것은 이 땅의 상황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아까워하실만한 노략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힘든 이유는 대통령이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인이고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특별히 우리의 삶이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 대통령을 뽑아야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유대 사회에서 외면 받고 소외당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세상의 휩쓸림을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전념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차별받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전하게 된 것은 모두 세상의 휩쓸림으로부터 빠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선민은 고지를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며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꿈꾸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선민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고지론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쟁에서 1등을 하겠다는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깊고 무거운 휩쓸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한편 돈 걱정을 하고 먹고 살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휩쓸린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야심이 없을 뿐이지 마지못해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휩쓸리지 않는 것은 세상을 통째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경쟁에서 1등해서 얻으려고 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만족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으로 이 기쁨과 만족을 해결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이 세상 한 복판인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지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민이라면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승진하지 못했더라도 하늘로 기뻐하고, 월급이 오르지 않았어도 하늘로 기뻐하고, 당장 주머니가 비었더라도 하늘로 기뻐하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과 바벨론이 유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 중심이던 고대 근동이 바벨론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선민이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28절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선민은 바로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고 세상을 통째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선민은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경쟁에 대해 담을 쌓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의 결핍을 완전히 해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선민은 이 땅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민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실 거점으로 삼으십니다. 세상은 결코 고지를 점령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고지를 점령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셔서 산헤드린공회에 넘겨지셨다가 로마의 빌라도 손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유다 사회의 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산헤드린공회와 로마의 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때에 세상의 중심은 누구였습니까? 유다 사회가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으로 삼으셨던 것은 힘없고 권력 없고 뺨을 맞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셨던 이유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대의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까지 마음이 땅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모욕한 모든 이들을 다 죽이시고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셨기에 세상의 중심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비로소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나간 이들 중 누구도 고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9%의 기독교 인구로 인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전환 될 때에도 이들 중에 80%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AD.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도 황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에 교황이 천하를 좌우하던 시기에는 반대로 종교로써의 기독교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듯했지만 복음은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게 되었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계와 재계 그리고 대형로펌들에 의해서 법마저 유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시고 빌라도를 이용하시고 산헤드린공회와 가룟 유다를 이용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선민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은 힘 있고 권력 있는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그들을 이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휩쓸리지 않는 자가 중심점이 되고, 휩쓸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지를 점령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소모품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으면 사회적으로 위에 있거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사회적으로 외면 받고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사회를 존속시켰던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으로 부자 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중심입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중심점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